

영광군대파작목반, 대파 연중생산체계 구축 선진지 견학

회원 25명 대상 충북 청주시·전북 완주군서 현장교육

질문·답변 시간 가지며 경쟁력 향상과 동기부여 계기

영광군은 지난 3월28일 품목별농업인연구회(영광대파작목반)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충북 청주시(대파가공유통센터)와 전북 완주군(대파연중생산단지)로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광대파 연중생산 규격화 및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대파 연중생산

단지의 재배방식 및 작기, 유통현황 등에 대해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 회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군은 대파 재배면적이 360ha로 겨울대파 주산지(신안1,568ha, 진도1,087ha)에 비하여 재배면적이 적어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광 대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시장 교섭력을 키우고, 안전한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별 보급뿐 아니라 균일한 대파 생산을 위한 지속적 기술 교육 등 대파 농가 소득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2023-2024년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광대파작목반은 전량 겨울대파 유통상인과의 포전거래로 거래되어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자구책으로 자



체 연중생산출하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KTX 타고 함평나비대축제 보러오세요”

4월28일~5월7일 축제 기간 하루 3회씩 함평역에 임시 정차



함평군에서 열리는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동안 KTX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한다.

군에 따르면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하루 3회씩

함평=김광춘기자

KTX가 함평에 임시 정차한다.

이번 KTX 함평역 정차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방문하는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코레일의 배려로 이뤄졌다.

KTX는 축제 기간 용산역 출발 기준 하행선 하루 3회(6시28분, 7시46분, 8시19분), 함평역 출발 기준 상행선 하루 3회(16시7분, 17시11분, 18시15분)씩 운행된다.

군은 KTX 이용 관람객 편의를 위해 함평역-축제장(함평엑스포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축제 입장권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체험 및 전시, 문화예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목포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노면청소차 집중 운영

도로위 미세먼지 줄이기

목포시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면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 있다가 주행하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말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기간과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차량운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주 2회이상 노면 청소 차량 3대를 운행해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에 집중했다.

앞으로도 시는 도로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미세먼지 제거차량 도입” 추진을 위해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총 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1대를 추가 도입했고, 올해 6월까지 1대를 추가해 모두 2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도로 내 재비산 먼지 발생량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면서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노면청소차량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숨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초·중·고·대 입학 축하금 지원한다

무안군은 교육받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10만 원, 대학 신입생 1인 10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지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신청 방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안=이성기기자

영암군 “노후도로 곳곳 포트홀, 새옷 입힌다”

도비 20억원 투입...지방도 819호선 대대적 보수 추진

전남도와 영암군이 지방도 819호선(영암읍~학산면)에 대한 대대적인 포장도로 보수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손상된 지방도 포장도로의 기존 포장층을 걷어내고 재포장과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동절기 대설 등으로 인한 포트홀 및 거북등 균열 등 도로포장 손상이 다수 발생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으며, 도로관리사업소와 지방도 819호선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포장균열, 집하, 노후도 등을 감안해 재포장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도 819호선에 대한 보수공사는 영암군

과 전남도(도로교통과) 및 도로관리사업소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진행되며, 3월 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오는 4월 말까지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여름철 우기로 인한 추가적인 포장 파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구)국도2호선(세한대~삼호대교) 및 군도 등 여타 도로 보수공사들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 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등 관내 도로 보수대상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14개 읍·면 정화조 모기 유출입방지팬 설치로 주민건강 지킨다

유출입방지팬 설치로 주민건강 지킨다

신안군은 동절기 월동 모기 및 유충 방제 작업을 위한 14개 읍·면 정화조 모기 유출입방지팬 설치 및 유충구제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화조 모기 유출입방지팬 설치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4개 읍·면 4,000세대에 완료하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화조에 양파망을 사용하여 모기 유출입을 차단하고 있었으며, 모기 유출입방지팬 설치에 신안군의 주민건강보호 방역활동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친환경 모기방제기구인 모기 유출입방지팬은 정화조가 모기유충의 집단서식지라는



점에 착안해 만든 장치로, 모기성충이 통과할 수 없는 2mm 이하의 방충망을 정화조 환풍기에 설치해 모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